

# “저항하라” 세계에 선포하는 광주發 메시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

### ■ 전시

저항미술운동의 상징  
케테 콜비츠 작품 46점  
루쉰 목판화 58점 등  
17개국 57명 작가 작품

### ■ 강연

세계적 석학·인권단체 등  
강사 100여 명 참여  
시대적인 화두 되짚어  
선언문 작성 세계로

### ■ 퍼포먼스

금남로·5·18 사적지서  
걸개그림·거리 가면극  
518번 버스로 작품 만들어  
행사기간 오월길 투어



케테 콜비츠 루쉰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작품으로 유명한 20세기 독일 저항미술 운동의 선구자 케테 콜비츠와 소설 ‘이Q정전’을 쓴 루쉰의 판화. 국내·외 각계각층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강연, 새벽 5시18분 오월길을 달리는 518번 버스.

축제는 시작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작심하고 만든 행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4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이후 34년간의 광주 근현대사를 조망하고 ‘광주발 메시지’를 세계 속에 선포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프로젝트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태동 모태가 된 ‘광주정신’을 되짚어보면서, 오는 9월 열리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는 행사다.

주제는 ‘달콤한 이슬-1980 그 후’다. 천하가 태평할 때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단 이슬’ ‘감로’(甘露)에서 따온 말이다. 망자나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민간 신앙적 감로 탕하는 인간이 겪는 온갖 고난들을 예술적으로 그려낸 우리 고유의 불화다. 감로처럼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광주를 비롯해 세계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민간 신앙적 해석을 담았다는 것이 비엔날레재단의 설명이다.

‘달콤한 이슬’은 전시, 강연, 퍼포먼스 3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며, 20주년 자문위원회(위원장 강연준)에서 선정한 책임 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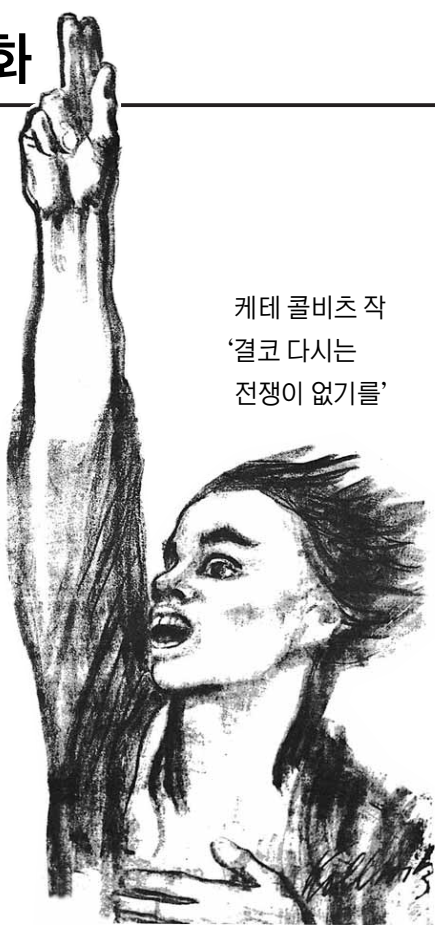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에서 8월 8일부터 전시되는 케테 콜비츠 판화작품 ‘어머니들’.



오원배 작 ‘무제’

레이터 윤범모 가천대 교수 등 8명의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8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94일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17개국 57명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나치 시절 미술을 통해 저항운동을 한 케테 콜비츠의 작품을 시작으로 1930년대 루쉰의 항일 목판화운동 그리고 1980년대 한국의 민중 미술로 이어지는 미술의 사회 참여 역사와 의미를 조망하는 전시다. 국

내 최대 사찰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감로 탕화 2점도 전시된다. 윤 교수는 “제주도, 오키나와, 타이완,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처라는 공통점을 토대로 각 지역 작가들을 참여시키는 등 광주정신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며 “전시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20세기 해외 저항미술 운동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진다. 미술관 3



케테 콜비츠 작 ‘걸코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갤러리에서는 케테 콜비츠, 루쉰, 벤산의 작품이 전시된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고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독일의 여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폭동’, ‘베고프’, ‘살아남은 자들’ 등 46점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고, 루쉰의 목판화 58점도 광주를 찾는다. 또 하정웅 컬렉션 중 벤산 등의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강연 시리즈는 모두 5개 섹션, 14회로 구성됐다. 세계적인 석학과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100여명이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예술의 현재와 시대적 화두를 되짚는다. 강연 프로젝트 결과물은 오는 11월 광주발 선언문으로 세계에 뿌려진다.

오는 8월8일 전시 개막에 맞춰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좌담회도 열린다. 지난 30여년 동안 미술사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킨 전시와 기획자들이 모여 현대미술사를 회고하고 정리한다. 독일 뮌스터시 조각 프로젝트를 이끈 카스퍼 괴니히, 로마현대미술관 관장 후 한루, 1997년 카셀도큐멘타 감독 카트린 다비드 등 4명이 참여한다.

앞서 진행된 원탁토론회에서는 학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가 참여 ‘광주정신’을 탐색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심포지엄, 포럼, 강연 퍼포먼스가 특별프로젝트 기간 진행된다.

‘달콤길, 다섯 개의 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퍼포먼스는 금남로 일원, 5·18 사적지, 양림동 등에서 진행된다.

한희원, 주홍, 김해성씨 등이 참여하는 걸개그림 퍼포먼스와 성능경, 김광철씨 등 국내 1세대 퍼포먼스 아티스트 등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과 꾸미는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518번 버스 한 대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행사기간 내내 오월길을 투어한다. 버스는 새벽 또는 오후 5시18분 운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리 가면극이 광주역, 광주공원 등에서 펼쳐지고, 오월 어머니들과 부상자들의 사진이 양림동에 전시된다. /김연준기자 kki@kwangju.co.kr

## 김원중의 달거리 ‘양림교회 110년’

30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110여년 전인 1904년 광주에 첫 번째 교회가 문을 연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다. 나환자촌이 있던 양림동에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유진 벨이 세운 교회다. 또 1905년 유진 벨 목사의 사택을 진료소로 개조하여 첫 진료를 시작한 것이 광주기독교병원의 전신인 제중병원이다.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은 나환자를 비롯해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는 데 앞장섰고, 그 나뉠 정신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회 개설 100년이 지난 2004년 양림교회는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와 의료시설을 짓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선교와 나눔을 시작했다.

매달 한차례(마지막 주 월요일) 시민들을 만나는 ‘김원중의 달거리’ 6월 공연(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를 시민문화관) 주제는 ‘아메리카·코리아·아프리카’다. 행사를 기획한 김원중씨는 “나눔과 실천의 현장인 110년 역사의 양림교회를 통해 인류가 지향해온 공동 선(善)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의 삶과 정신을 공연 속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출연진은 피아니스트 박의혁과 오보에 연주자 박지훈씨, 광주알판로제 요율 클립, 바닥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우), 김원중,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주홍(샌드 애니메이션)씨 등이다.

최학후 양림교회 담임목사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며 무대를 꾸미는 이달의 화가는 윤해욱씨다. 문의 010-3670-5802, www.kim-wonjoong.com.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모습.

## 전남도립국악단·경북도립국악단

### 영·호남 교류공연 ‘아리랑 축제’

오늘부터 전남·경북 14곳서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이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다. 25일 전남 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26일부터 10월까지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이 전남과 경북지역 14곳에서 영·호남 교류공연 ‘아리랑 축제’를 연다.

교류공연은 강진(26일·강진군아트홀)을 시작으로 고흥(7월 10일·고흥문화회관), 구례(7월 17일·섬진아트홀), 무안(8월 15일·무안연꽃축제), 장흥(9월 16일·장흥문화예술회관), 장성(10월 31일·백양단풍축제), 나주(10월 예정) 등 7곳에서 펼쳐진다.

경북에서는 지난 4월 열린 고령대 가야축제를 시작으로 울릉·영양·봉화·상주·청송군과 영천한방과일축제(10월 예정) 등 7곳에서 추진 중이다. ‘아리랑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양 국악단은 7개의 레퍼토리를 총 80분 동안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은 부채춤,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 협연, 입춤 소고, 마당창극, ‘신명의 타고’ 등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 경북도립국악단은 전통 향피리를 개량해 다양한 리듬을 연주하는 ‘피리 3중주-춤을 위한 메나리’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델/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상업용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델,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유 제 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출찰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든][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재테크,방식,건강정보 전국 새 번째이상 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급매물도있어요

-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땅처리
- 2)롯데원 원룸빌딩 50%급처분
- 3)대형 콜라텍 거져드립니다
- 4)화순,담양 전담,임야 판매물 많아요
- 5)대리코너 대단지임구 판매도있어요

동부소방서사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 다와 옥션

5층원룸 동구 계림동

대지 205㎡ 건물 2652㎡

감정가 4억2382만원

최저가 2억9668만원

운암동 벽산블루밍

메가시티 201동

감정가 2억8700만원

최저가 2억90만원

농지 광산구 동산동

대지 5976㎡

감정가 2억3460만원

최저가 1억6422만원

이 주 원 010-7171-7610